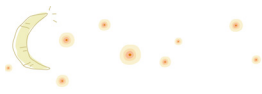


결론 및 정책제언

05

1. 지원공모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2.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은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도민들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점,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평론, 정보화, 문화예술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원대상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점 등은 문화정책의 변화를 반영했을 뿐 아니라 문화정책의 위상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의 외재성을 최대화하려는 소중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사업이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매우 귀중하다 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데, 매년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불필요한 행정적 간섭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문화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은 개개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간섭이라는 측면보다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 전체의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모니터링의 목적이 간섭이 아니라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제고임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경기문화재단의 모니터링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이다. 하지만 지원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점검해본 결과 나타난 몇 가지 제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지원공모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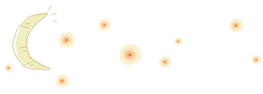
- (1) 지원공모사업이 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실시하는 중장기적 비전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중장기적 비전 없이 관례적으로 매년 지원공모사업을 실시한다면,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에 경기문화재단이 중장기적 문화정책의 목표와 지향을 담은 경기문화비전을 입안한다면,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은 중장기 경기문화비전의 정책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다.



- (2) 문화예술지원금 신청 기회는 현재 신청주체 별로 살펴보면 비대칭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매개자(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향유자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또한 예술인(단체), 매개자(단체), 향유자(단체)를 배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신청 자격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인/매개자/향유자라는 3분법이 변화하는 문화예술환경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문화예술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전통적인 3분법의 타당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문화예술의 추이를 감안하여 전통적인 3분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전통적인 3분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각 주체(예술인/매개자/향유자)를 배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만약 신청주체에 대한 배타적 정의가 불가능하다면 신청 주체간 신청 자격을 불균등하게 배분하지 말고, 차라리 모든 주체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
- (3)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사회의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른 변동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지원분야 구분 및 지원분야간 예산 배분 등은 재빨리 변동될 필요가 있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변화들, 예를 들어 장르 파괴 및 혼종화 현상 아마추어와 전문예술가 사이의 경계 파괴 등의 현상 등은 지원공모사업을 디자인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변화들이라 생각한다.

2.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팔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교조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간섭과 평가는 분명 구별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모니터링 자체가 지원을 구실로 간섭하는 행위로 비취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모니터링의 가능성에 대한 과대 기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원사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원사업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겠지만 문화예술의



특성상 지원사업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바로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으로 지적하는 문화예술의 이른바 외재적 효과는 단기간에 발휘되는 효과가 아니라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행정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효과는 경제정책과는 달리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완벽한 평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는 불가피하게 주관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는 가치지향적이고 논쟁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의욕이 앞서 모든 공모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모니터링하려 하고, 과학적 모니터링을 위해 평가지표체계를 개발하면 할수록 본래의 지원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의 취지에서 벗어나 모니터링 과정 자체가 지극히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과정으로 변형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체계의 객관화, 모니터링 기법의 과학화보다 정작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은 모니터링의 목적이다. 모니터링의 목적을 행정적 통제에 둔다면 모니터링 기법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개발해야겠지만, 모니터링의 목적이 행정적 통제가 아니라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피드백(Feed Back)에 둔다면 모니터링의 기법과 완벽하고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모든 평가가 그러하듯, 평가 시스템 구축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누가 평가하는냐이다. 현재 모니터링은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각 전문가가 지닌 미학적 신념과 가치에 따라 동일한 행사에 대해 상이한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는 전문가 집단 ‘풀’에 이른바 ‘연줄’과 ‘끼리끼리’의 관행이 개입되는지의 여부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 만약 전문가 집단 풀이 순수하지 못한 의도와 관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모니터링 기법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모니터링에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 모니터링이 미학적 판단으로 이해한다면, 모니터링은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야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모니터링의 기준이 미학적 판단이 아니라 문화향유자에게 지원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전문가 집단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본 보고서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전문가 집단은 미학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반면 시민 모니터링 집단은 모니터링하는 자신을 일반적인 문화예술향유자의 눈높이에 동일시하며 모니터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만약 우리가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수월성 제고에 초점을 둔다면 전문가 모니터링이 중요하겠으나,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에 목표를 둔다면 전문가보다 시민 모니터링 집단이 모니터링의 원래 취지에 맞는 활동을 보여줄 수 있다. 전문가 집단과 시민 모니터링 집단이 모니터링에서 보여주는 모니터링에 대한 상이한 태도는 누가 옳바르고 누가 잘못되었는가의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혹은 왜 하는가와 관련된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의 모니터링 과정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완성되어 있고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 과정이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고안되고, 기술적으로 완성된 체계를 갖추려고 하면 할수록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본 결과, 우리는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보완보다 중요한 문제는 모니터링 사업과 경기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문화비전을 연계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모니터링 기법을 선택할 것인가, 모니터링의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모니터링 체계 내부에 있지 않고, 오히려 경기도가 어떤 문화정책을 지향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정책 비전속에 있다.

더불어 함께 일구는 문화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발행일 2007년 9월 1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김문수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전 화 031) 231-8514
홈페이지 <http://review.ggcf.or.kr>
책임편집 신미라 (경기문화재단 지역정책팀)
연구작성자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전공교수)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전공교수)
연구보조원 배진희 (아주대학교, 심리학 전공 석사과정)
편집디자인 예원디자인
인 쇄 삼진인쇄

‘더불어 함께 일구는 문화’ 는 해마다 발간되는 경기문화재단의 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